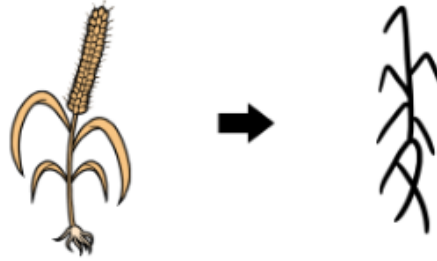


3(2)  
-  
141

회의문자 ①



麥

보리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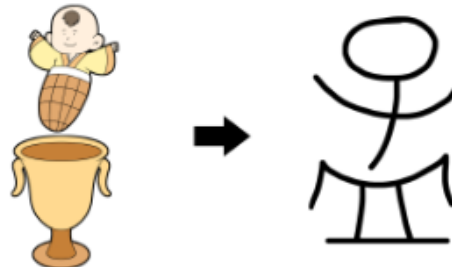
麥자는 '보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보리는 선사 시대부터 남동아시아에서 재배되어 기원전 2,000년경에는 중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작물이다. 생육 기간도 90일에 불과하여서 어찌 보면 인류가 가장 먼저 재배한 곡물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麥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

갈래로 늘어진 보리 이삭과 뿌리가 함께 𥝌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麥자는 보리 전체를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보리'라는 글자로는 '오다'라는 뜻의 來(올 래)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來자가 '오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夂(뒤져서 올 치)자를 더한 지금의麥자가 '보리'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42

회의문자 ①



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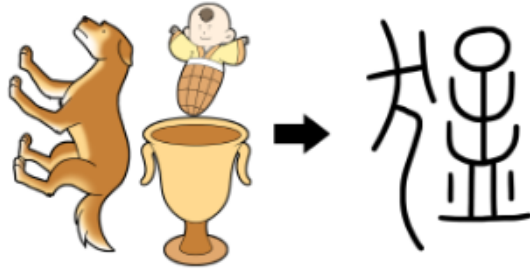
만 맹(·)

盥자는 '처음'이나 '말이',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盥자는 子(아들 자)자와 皿(그릇 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皿자는 그릇을 그린 것이다.盥자의 금문을 보면 마치 대야에 담긴 물로 아이를 씻기는 듯한 𣎵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盥자는 본래 '말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말이'라는 뜻은 주로 兄(말 형)자가 쓰이고 盥자는 쓰임이 거의 없다. 다만 오래전부터 맹자(孟子)의 약칭으로는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3(2)  
-  
143

회의문자 ①



猛

사나울  
맹:

猛자는 '사납다'나 '용맹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猛자는 犬(개 견)자와 孟(말 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孟자는 아이를 대야에 씻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말이'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猛자는 이렇게 '우두머리'를 뜻하는 孟자에 犬자를 결합한 것으로 '개(犬)들의 우두머리(孟)'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굳세고 용맹스러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猛자는 '강하다'나 '엄격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사납다'나 '잔혹하다'와 같이 무리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다른 면을 표현하게 되었다.

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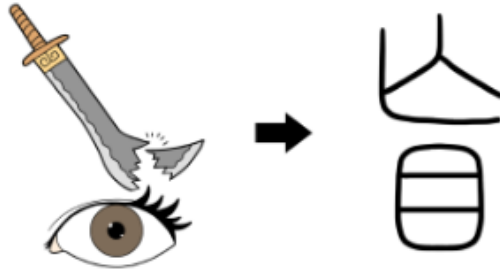
소전

猛

해서

3(2)  
-  
144

회의문자 ①



盲

소경/눈  
멀 맹

盲자는 '소경'이나 '눈이 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盲자는 亡(망할 망)자와 目(눈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盲자에서 말하는 '소경'이란 눈동자가 없는 장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盲자는 '망하다'나 '잃다'라는 뜻을 가진 亡자를 이용해 '눈(目)을 잃다(亡)'라는 뜻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盲자는 '눈을 잃다'라는 의미에서 '장님'을 뜻하게 된 것이다.

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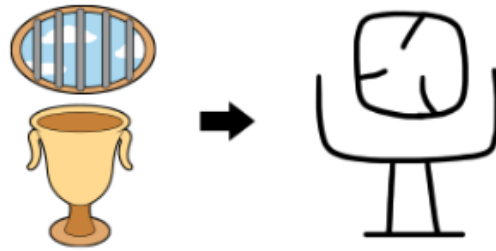
소전

盲

해서

3(2)  
-  
145

회의문자 ①



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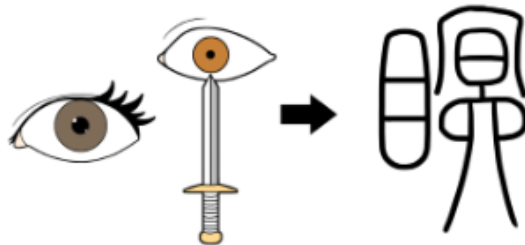
맹세 맹

盟자는 '맹세'나 '약속'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盟자는 皿(그릇 명)자와 明(밝을 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고대에는 제후들이 동맹을 약속할 때 술을 그릇에 담아 함께 마시며 신에게 맹세했다. 그러니 盟자에 쓰인 皿자는 의식에 쓰이는 그릇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갑골문에서는 皿자 위로 囧(빛날 경)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은 밝은 곳에서 굳은 결의를 약속한다는 뜻이었다. 금문에서는 明자가 '밝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면서 지금의 盟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46

회의문자 ①



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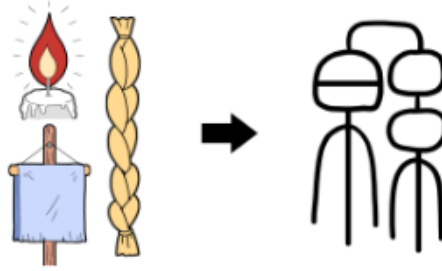
잘 면

眠자는 '자다'나 '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眠자는 目(눈 목)자와 民(백성 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眠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民자에 대한 풀이가 필요하다. 民자는 도구로 눈을 찔러 멀게 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포로의 한쪽 눈을 멀게 해 노예로 삼았다. 民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눈을 멀게 한 모습을 그린 民자에 目자가 더해진 眠자는 '눈을 감다' 즉 '자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표현방법이 다소 괴팍하지만, 고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많았다. 참고로 眠자와 유사한 글자로는 眼(눈 안)자가 있으니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

소전	해서

3(2)  
-  
147

회의문자 ①



綿

솜 면

綿자는 '솜'이나 '이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綿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帛(비단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帛자는 '흰 천'이나 '명주'라는 뜻을 갖고 있다. 綿자는 '솜'이나 '솜옷'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솜은 굳이 염색과 같은 가공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綿자는 '흰 천'이라는 뜻을 가진 帛자에 糸자를 결합해 원료 그대로 사용하던 솜을 뜻하게 되었다. 綿자에는 '이어지다'나 '끊어지지 않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솜을 꼬아 실을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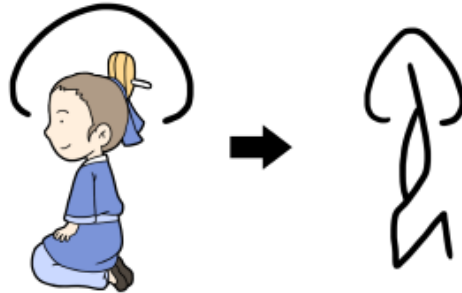
소전

綿

해서

3(2)  
-  
148

회의문자 ①



免

면할 면:

免자는 '면하다'나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免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의 머리주위를 무언가가 둘러싸고 卩 있었다. 이것은 투구를 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免자는 전장에서 투구 덕에 목숨을 건졌다는 의미에서 '(죽음을)면했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卩

갑골문

卩

금문

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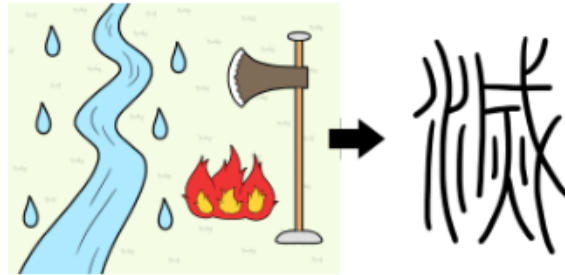
소전

免

해서

3(2)  
-  
149

회의문자 ①



滅

꺼질/멸  
할 멸

滅자는 '꺼지다'나 '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滅자는 水(물 수)자와 威(멸할 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威자는 도끼 창과 불을 결합한 것으로 '멸하다'라는 뜻이 있다. 전시에는 적을 혼란과 공포에 빠트리기 위해 화공(火攻)을 펼치기도 했었다. 威자는 창과 불로 적을 섬멸했다는 뜻이다. 이미 威자에 '멸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水자를 더한 滅자는 물로 적을 쓸어버린다는 뜻까지 표현하고 있다.

滅

소전

滅

해서

3(2)  
-  
150

회의문자 ①



銘

새길 명

銘자는 '새기다'나 '기록하다', '조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銘자는 金(쇠 금)자와 名(이름 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名자에 金자가 더해진 銘자는 금속판에 이름을 새긴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금속판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오래도록 이름을 남겨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銘자의 본래 의미는 "공덕(功德)을 기려 이름을 새기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록하다'나 '조각하다'와 같이 오래도록 보존하고 남긴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銘

금문

銘

소전

銘

해서